

2023년 12월 31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21편 7~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10(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41장 1~11절(구약p.801)

1.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 너는 밧줄로 그 코를 쥘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쥘 수 있겠느냐
3.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4.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두겠느냐
6.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7.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족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8.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9.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1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값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 ◎ 말씀선포 / 하나님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 40장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피조물의 으뜸이 사람이 아니라 베혜못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동물 리워야단을 등장 시키사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1.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리워야단은 사실 어떤 동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리워야단”이란 명칭은 아라비아어 “라워자”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은 “스스로 감다, 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리워야단은 스스로 감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리워야단은 세계 창조와 관련이 있는 매우 위협적인 동물이며, 바다 혹은 원시의 바다와 연관된 동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베헤못과는 달리 고대 근동에서는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 동물로도 등장합니다. 수많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문학에서 이 리워야단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혼돈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전승의 관점에서 보자면 베헤못보다는 리워야단이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로, 혼돈을 야기하는 세력이나 문제, 혹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기지 못할 상대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리워야단에 대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은 욥기에 묘사된 형태와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동물로 악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악어보다 더욱 크고 사나우며 결코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 욥은 이러한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없고, 리워야단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은 9~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을 강조하십니다. 누구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으며, 리워야단을 보기만 해도 싸울 의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0절 후반 절과 11절의 의미는 다소 모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 힘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동물에 대해 하나님은 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괴수를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먹이시며, 기르시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이 땅에 질서를 가져오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욥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방치하시거나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악을 심판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밤과 낮, 어둠과 빛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어하고 통제하시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돈의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악을 다 없애지 않으셨지만,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예가 보여 주듯이,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심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리워야단과 같은 괴수를 제압하시듯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직,
2.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하여 마치 사람이 기도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이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으며, 그것과 싸울 수도 없는 강력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다의 동물인 리워야단조차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기고 조종하려 한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즉 욕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64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때론 욕과 같이 우리 앞에 매여 있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욕과 같은 모습으로 투정했고, 불평하며, 기도가 응답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긍휼, 즉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풀무에 들어가야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혹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되어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교회 주제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짐을 알아 더욱 성령의 충만을 받고, 소망 없는 자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도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01(통460)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 폐 회 / 주기도문